

사회

■ 르포- 어등산골프장 주변 절골·운수동마을 가보니

“농약 때문에 샘물 못 먹고 생활 엉망”

운수천 고갈되고 농수로 피해쳐 농사 차질도

“평생 먹던 샘물도 농약 탓에 못 먹고, 고작 골프장 하나 들어선 게 광주시가 약속한 주민 휴양시설입니까?” 최근 찾은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절골마을은 어등산골프장(어등산컨트리클럽)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

8가구 15명의 주민이 사는 절골마을은 인근에 세워진 연화약수비(蓮花藥水碑)에 “만수원천 감악수(萬壽源泉 甘藥水·일만살까지 살게 하는 약수)”라는 글귀가 적혀있을 정도로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이었지만, 골프장이 들어서 이후 옛말이 되고 말았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조성기(66)씨는 “창문을 열면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이 방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전에는 마을 앞 계곡(절골계곡)물이 그냥 마셨는데, 이제는 마을 공동 지하수가

자도 농약 우려에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계곡에 1급수에서만 사는 개가 등이 있었지만, 골프장이 생긴 이후 다 없어졌다”면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다던 광주시는 감감무소식이고, 그나마 골프장에서 2년간 생수 값을 대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물값이나 받으려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근 골프장이 영업(시범라운딩)을 시작하면서 마을주민들은 혹시나 골프장이 집 안으로 날아들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휴일에 찾아오는 손자·손녀들마저도 골프장에 맞을까봐 못 오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언젠가 한번은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이 집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쫓아갔더니, 바람이 안 불때 뿌리겠다고 하더라”면서 “우리(마을주민)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창문도 마음껏 못 열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고통을 겪어야 하나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어등산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절골마을 내 주택은 직선거리로 100~200m이내에 불과했다. 마을과 골프장 사이에는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골프장측에서는 지난달부터 정식허가 없이 시범라운딩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는 이 마을뿐만이 아니다. 골프장 주변 마을인 운수동 마을 143세대 294명의 주민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골프장 잔디에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골프장내에 인공 담수호를 만들어 놓다 보니 물이 고갈, 인근 하천의 물이 마르면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강갑원(63·어등산골프장 피해대책위원장)씨는 “골프장 때문에 국가 2급 하천인 운수천이 고갈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더구나 골프장측에서 공사과정에 농수로 파헤쳐 놓고 방치하는 바람에 농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어등산골프장 관계자는 “주민들과 광주시에 기부를 약속한 대중홀(9홀) 수익금 가운데 30%를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05년 포병학교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광산구 운수동 일원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시민휴식 공간인 테마파크로 만들고, 대신 사업자의 이익금 확보를 위해 골프장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9월 골프장만 먼저 개장토록 하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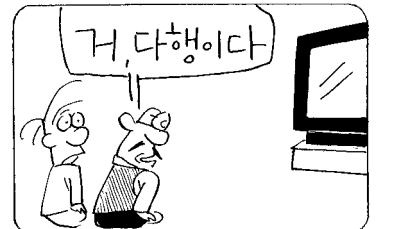
/박진표기자 hucky@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절골마을 주민이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마을 공동 지하 식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원침 (8684) 김장두



허위입원서 발급 의사·사무장 1천만원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6일 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의사 손모(46)씨와 병원 사무장 손모(40)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 등은 광주시 서구지역에서 별도로 입원실이 없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채팅 여고생 만나러왔다 스마트폰 썰떡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만나러 광주까지 왔다가 여고생의 스마트폰이 탐이나 훔쳐 달아난 부산 사나이가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정모(18)군이 지난달 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관동동 한 영화관에서 A(15)양의 스마트폰(9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던 정군은 경찰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탐나 훔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위조 부품 납품 8개사 조사

영광원전 5·6호기 중단 1120억 손실

영광원전 5·6호기의 가동 전면 중지와 함께 영광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원전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원전 측이 미검증 부품 사용에 8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이로 인해 축적된 경제적 손실은 1100억원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부품 공급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6일 영광원전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식경제부가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통해 납품된 부품 대부분이 설치된 영광 5·6호기의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력 감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출력 감발이 시작된 영광 5호기는 6일 오후 2시께 가동이 완전히 정지되고 6호기는 밤 10시께 발전이 정지됐다. 영광 5·6호기(100만kw급)의 하루 발전 용량은 각각 20W형광등 5000만개의 불을 켤 수 있는 양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여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 방

침대로 연말까지 가동이 중단된다면 산출적으로 112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미검증 원전 부품” 납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 수량·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납품업체 대부분은 광주·전남지역 소재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검증서 위조 과정, 미검증 부품 납품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원전 소재 공무원 노동단체 협의회는 6일 “원전 안전관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군 등 5개 자치단체 공무원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년 동안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원전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며 심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친딸 성폭행범 신상 공개’ 엇갈린 판결

친딸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 아버지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청주지법은 ‘부녀 사이’라는 특수성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 비공개로 한 것이다.

광주지법 “패륜 처벌 미양” 공개

청주지법 2차 피해 감안 비공개

친딸 성폭행범 기소된 B(6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도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청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고지 명령으로 자칫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광주지법의 판단처럼 친딸 성폭행범을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행 사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등산골프장 先개장 안된다”

시민단체·피해대책위 집회

어등산골프장의 선(先) 개장을 놓고 지역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산지역 시민단체와 피해대책위원회가 골프장 입구에서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6일 광주 광산시민연대와 어등산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등산골프장 진입 출입구 앞에서 개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집회는 광산지역 시민단체 및

피해대책위원회 회원 등 수백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로 개최될 계획이라는 게 피해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어등산골프장 출입구에 대해 집회 허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피해대책위원회 강삼철 총무는 “사업자측의 배정영업과 이를 묵인하고 용납해주는 광주시의 행태는 시민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근조기를 걸고 상여까지 띄우는 퍼포먼스성 집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또 여수시청 직원...

산단조성 금품 항음

회계과 직원의 76억원 공공회령사건이 터진 여수시청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은 6일 ‘A 팀장 등 여수시청 공무원 2명이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B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음을 받았다

는 여수시의 의뢰가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사가 재하도금관계인 C업체에게 이들 공무원에게 상당할 금품을 요구, 이를 받아 제공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사를 압수수색하고 A팀장 등도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제10회 광신대학교 전국학생 음악콩쿨 전국 초·중·고등학생 음악 경연대회

2012 Kwangshin Music Competition

· 일 시 2012. 11. 24(토) 오후 1시  
· 장 소 광신대학교 콘서트홀, 국제홀  
· 접수기간 2012. 11. 1(목) ~ 11. 21(수) 오후 5시까지

■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고등부는 당해년도 졸업자 포함-대학생 제외)(단, 고등부 당해년도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연부문 ·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각 부문 행사일정은 행사 전 날 본 대학 일반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함)

■ 참가신청 · 참가비: 초등부 3만원 / 중·고등부 7만원  
· 입금계좌: 광주은행 416-107-052719 (예금주: 최보라)  
※ 반드시 참가자의 이름, 전공 기재할 것 / 입금후 전화확인 요망.  
※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이 일체 불가함.

■ 접수 · 인터넷 접수: 광신대 홈페이지 (www.kwangshin.ac.kr)  
· 방문접수: 광신대학교 진리관 4층 음악학과 사무실

■ 시상 · 대상: 중 고등부 각 부문 1등 입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 (심사결과 90점 미만 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부문: 1등, 2등, 3등,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우수지도교사상: 입상자 다수 배출자(고급 상패와 상장)

■ 특전 \*대상 경연 진출자 중 선발함.  
· 대상: 상금 오십만원 (5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 최우수상: 상금 삼십만원 (3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 우수상: 상금 이십만원 (2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 고등부 입상자: 본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대상/4년, 1등/3년, 2등/2년, 3등/1년)

과제곡

부문	예선	본선	
피아노	초등부1-2학년	없음	자유곡 1곡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1-2학년	자유곡 1곡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성악	초등부1-2학년	없음	자유곡 1곡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1-2학년	자유곡 1곡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관현악 (현악부문)	초등부1-2학년	없음	자유곡 1곡 (협주곡일 경우 카덴자 포함)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1-2학년	없음	자유곡 1곡 (협주곡일 경우 카덴자 포함)
고등부3학년			
작곡	고등부	없음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형식의 피아노곡

유의사항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할 것.  
· 필요한 악기 및 반주자는 출연자가 준비하여야 함.  
· 참가자의 기량이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위원장이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문의처

·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사무실  
· 전 화 (062) 605-1130, 팩스(062) 571-7255

